

잡아함60 불락경

날짜: 1월 31st,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55>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5수음이 있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 · 수수음 · 상수음 · 행수음 · 식수음이니라. 훌륭한 비구들아, 색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탄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훌륭한 비구들아, 수 · 상 · 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식을 즐거워하지 말고, 식을 찬탄하지 말며, 식을 취하지 말고, 식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으며, 색을 취하지 않고, 색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수 · 상 · 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식을 찬탄하지 않으며, 식을 취하지 않고, 식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식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비구가 색을 즐거워하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고, 이와 같이 수 · 상 · 행 · 식을 즐거워하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면, 그는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평등한 온화함에 머물러 탐착(貪著)을 떠나 명철히 깨달아 해탈의 지견을 얻을 것이다. 그

비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면 과거는 그와 동시에 남김 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볼 것이요, 과거가 그와 동시에 남김 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본 뒤에는 미래도 그와 동시에 남김 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볼 것이다. 미래도 그와 동시에 남김 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본 뒤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남김 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보아 집착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집착할 것이 없어진 뒤에는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바가 없을 것이요, 취할 바가 없어지면 구할 것이 없어질 것이며, 구할 것이 없어지면 스스로 열반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